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담배, 그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며

아침이 허전하다. 오랜 친구를 힘들게 떠나보내시다. 새벽 공복의 담배 한 대는 수십 년 친구였다. 건강에 나쁜 것은 알고 있었다. 하나, 타들어가는 빨간 담뱃불과 허공으로 사라지는 회색빛 연기에 쓰디 쓴 기억들을 태우고 날려 보낼 수 있어 하루의 시작은 충분히 행복했다.

이제 그를 보낸 지 일주 한 달, 아찌 아찌이 허허롭지 않을까. 떠나보낸 친구가 그림자. 하지만, 이번만은 참아내기로 했다. 담뱃세가 미워서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복지사회를 꿈꾼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들은 하나같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 북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복지가 미비한 국가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낮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돈다. 그러나 복지 국가의 꿈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기득

권이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게 현대의 세금 체계이다. 그러나 한사코 반대하는 건 어찌던 당연하다. 심지어 기존 세금을 깎아버리기까지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부자 감세'가 대표적이다.

나라를 망치는 정권은 세금을 줄여 인심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국가의 곳간은 점차 비어가고 빛만 쌓인다. 국가 운영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어디선가 구멍 난 세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 이때 간접세가 표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본인'이 세금을 내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일상을 산다는 건 간접세를 낸다는 것과 동이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우리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보통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슬그머니 간접세를 올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히기 일쑤다. 조세 저항이 미미하니 증세 시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된다.

한데, 간접세는 치명적 독을 품고 있다.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의 방해물로 작

용한다.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수단이 바로 세금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게 국가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게 바로 국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경제 민주화다.

한데 간접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의 거의 없다.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다. '부의 분익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좋은 예다. 담배 한 갑을 살 때 누구나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견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속을 파보면 불평등의 원천이다. 담배값은 오를 1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보자.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소득자에게 10만 원은 같은 돈이라 할 수 없다. 100만 원 소득자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1000만 원 소득자에게 1%에 불과하다.

간접세는 역 누진 개념이 적용된다. 많이 벌수록 소득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적게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다. 공평하지 않다. 게다가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주로 서민층에 부과되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유난히 간접세 비중이 높다. 이걸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를 통해 소수에 불과한 기득권의 세금을 깎아줬다. 물론 직접세다. 그렇게 구멍 난 세수는 누가 부담한 걸까. 한사코 증세는 없었던 현 정권은 간접세를 올리고 빚을 내 충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조세 정의란 공평한 세금 부과에서 시작된다. 한데,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걸 두려워하면서 서민들의 지갑만을 노리는 건 권력하지 않다.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통해 증세를 꾀하는 건 경제민주화에 반한다. 부의 불균형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니 담배가 쉽게 보일 리 없다. 정확히는 불공평한 세금이 많다. 조세저항이라 해도 좋다. 공평하지 않은 일에 일조하기 싫다. 담배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내가 지켜야하는 것



송우진 원불교 상무대학교당 주임교무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나'라는 성은 원래 우주에서 단 하나뿐이며 독특하고 놀라운 개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성이 얼마 벅속에서 막 태어났을 때, 그 성은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이 열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들고 나면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온전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성이 본래의 빛나는 모습을 잃고 쇠락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와서 어지럽힌다 해도, 한 성의 성주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성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성주입니다. 성주 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 결정

권을 가지고 있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성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성의 성주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바로 여기에 성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성에서 벌어지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모든 일을 보고받고 알며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성이 가는 길을 제시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 혹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성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욕심과 분노로 휩싸여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성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주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의 성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성문에 CCTV를 달아 놓고 지켜보듯이 설치된 모니터를 보며, 어떤 존재,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괴롭히거나 요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면 성문을 걸어잠그고 열심히 방어를 최선을 다하고, 바람직하거나 힘을 주는 것들이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어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성주는 너무 바쁩니다. 하루 하루 주어진 순간의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성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곤 합니다.

때때로 나를 차분하게 만들고 내 삶의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는 성주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그 평화로운 온전한 성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고

문화전당과 함께 떠오르는 동구



임영일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연구·교류·교육과 전시·공연 등을 아우르는 문화발전소이자 창작소이다. 이곳에서 연간 200여만 명의 관람객이 체류관광을 즐긴다면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산업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예향·의향·미향의 중심인 동구는 문화중심 관광환경을 만들 수 있는 최적지이다.

동구가 가진 비종 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는 먼저 '추억의 7080총장축제'를 들 수 있다. 총장축제는 2년 연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미 국내 최고의 거리문화 예술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오는 10월 개최되는 총장축제는 프로그램 중 일부가 문화전당 안에서 펼쳐진다. 총장축제

를 찾는 수십만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문화전당의 위용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동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관광코스과 연계상품을 개발 중이다. 중국인 요우커(遊客)들이 정음성 선생 생가 터를 방문하고 패션과 젊음의 거리인 충장로에서 쇼핑을 하거나 남도에 숲이 깃든 예술의 거리를 찾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대인아시아에서는 광주의 정취와 밤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도 탐방코스라 제격이다. 무등산 길목엔 전통문화관·의재미술관·중심사 등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즐비해 있다. 아시아음식문화의 구 조성이업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음식을 즐기면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 기능을 할 것이다.

또 아시아 각 나라 문화원을 유치, 지역이 아시아 문화의 용광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구는 첫 단계로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동구는 문화전당과 U대회 등에 대비, 주변시설(한옥)을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동구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남도문화유산과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관광객 이목을 끌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민간자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동구가 정양의 해를 맞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과를 거둬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면 도심 공화국·국북은 물론 젊은이들의 꿈이 펼쳐지고 광주의 미래를 열어젖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

등굣길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차량사이를 빠르게 뛰어서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보며 사고가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란다.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부모를 대응은 그리 모범적이라 말할 수

없다. 정작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우려하면서도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어떤 학부모는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 차가 멈춰서지 확인하지 않고 건너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통사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부분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부모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한다.

경찰관이 스피클론을 보호하고 도심에서 과속과 음주운전금지, 정지선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무단횡단금지를 해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

용지물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이다. 엄마나 아빠가 무단횡단을 하면 어린이들은 무심코 따라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삼四年级로 진학하면서 부모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을 것이나,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게 행복한 세상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도연·영양권 영암을 남문로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빛더미 앞은 F1 70억 추가시설 타당한가

전남도가 빛더미에 앉은 F1 경주장에 70억여 원의 거액을 들여 추가시설을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회를 치르지 못한데다 앞으로 갈아야 할 돈이 123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제대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F1 경주장 서킷을 1.1km가량 연장해 경주 주로를 2개로 분리하는 듀얼서킷 구축공사가 2017년까지 추진된다. 경주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의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F1 경주장은 자동차 동호회 경주, 중소 규모 자동차 경주대회, 자동차 성능시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경주장 주변 부지를 활용해 튜닝 및 고성능 차 부품 인프라를 구축, 국내외 자동차 튜닝부품 업체 100여 개를 유치하는 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경제평론가>

광주 아파트 응벽 붕괴사고도 인재라니

5일 새벽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발생한 응벽 붕괴사고도 사실상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지지체의 재해위험 관리는 허점 투성이었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민원 제기에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9분께 대화아파트 뒷면 높이 15m, 길이 200m의 응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되면서 아파트 내 차량 50여 대가 매몰돼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과 가까운 102·103동 165세대 입주인 49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근 초등학교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응벽은 사고 직후 광주시의 안전진단 결과,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복구시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이 기간 집에 들어가기 어려워 불편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고가 난 응벽은 경사가 거의 90도

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향후 성과에 대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가동했을 것이고 전망이 밝으니까 착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당시 전남의 발전을 몇 단계 끌어올릴 획기적인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F1은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건설비가 4285억 원 투입됐고 아직 미상환금액은 1230억 원에 달하며 향후 15년간 이자로 4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지난해 5억 원을 벌었다는데 경주장 시설보수 및 증축 등에 24억 원을 사용했다. 이번 투자결정이 또 다른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유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을 펼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사업환경은 수시로 변한다. 미래는 결코 예측한 대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사업 추진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부여를 통해 더 이상 도민들에게 격정 거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等鼓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가파른 산등성이. 등산화를 벗어 보니 발가락은 온통 피투성이다. 이를 악물고 발톱을 뿜어버린다. 곁에 세워둔 배낭이 넘어지며 순간, 등산화 한짝이 계곡 아래로 떨어진다. 육설을 쏟아 붓고 6주 동안 함께 했던 나머지 신발 한 짝마저 바닥으로 던져 버린다.

영화 '와일드'(Wild)의 첫 장면. '등산화마냥 단져진 채 널브러진 삶'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길을 걷는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acific Crest Trail)이다. 남쪽 멕시코 국경

10대 시절 3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마약으로 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파울로 코엘료는 이 길을 걷고 난 후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세계적인 도보여행가이자 '나는 걷는다'의 저자인 베르나르 울리비에도 이 길을 걸었다. 제주 올레길 서명숙 이사장 역시 이 길을 걷은 후 고향 제주에 올레길을 냈다.

'와일드'는 세월 스트레이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출간된 동명의 책은 밀리언셀러가 됐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26살 고아'가 된 그녀는 방황한 생활을 하

다 길 위에 선다. 그녀는 중간 중간 과거의 삶들을 회상하며 예전의 자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일출과 일몰은 매일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매일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 아름다운 길로 들어설 수 있어." 엄마의 격려를 기억해 낼 때는 덩달아 위로를 받는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래도 인상적이다.

'길 위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잡는 이들이 많다. 제주도 올레길에서 시작된 열풍은 지리산 둘레길, 무등산 옛길 등 전국의 길로 이어졌다.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정경이다. 예수의 열 두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산티아고는 스페인식 이름)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로 가는 길이다.

4285km를 걷는 것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사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